

# 만연한 능력주의와 이를 맹신하는 사회

- 능력주의를 맹신하게 된 원인을 중심으로 -

박혜원(기업경영학부)

- 목차 -

- I. 서론
- II. 능력주의의 부정적 영향
  - 1. 차별의 정당화
  - 2. 끝없는 자기착취 유발
  - 3. 불평등 심화
- III. 능력주의 맹신 원인 : 만연한 능력주의, 맹신하는 우리 사회
  - 1. 능력주의의 역사 흐름
  - 2.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 3. '공정'에 대한 집착
- IV. 결론
- 참고문헌

## I. 서론

드라마 <SKY 캐슬>에서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엄마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힘쓴다. 엄마들은 입시 코디네이터를 통해 자녀들의 학생부를 관리하는데, 이들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한다.<sup>1)</sup> 이는 드라마 속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에서도 부모의 재력과 권력 등이 자녀의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였던 최 씨가 특혜를 통해 자녀인 정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킨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최 씨의 권력을 이용한 요구로, 이화여대 측은 정 씨가 대학원서 마감일 이후 획득한 금메달을 서류평가 항목에 반영했으며, 더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점수를 낮게 조정해 정 씨의 입학에 도왔다.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짐과 동시에 정 씨가 자신의 SNS에 '돈도 실력'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sup>2)</sup> 이러한 입시 비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공정한 경쟁'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수능 성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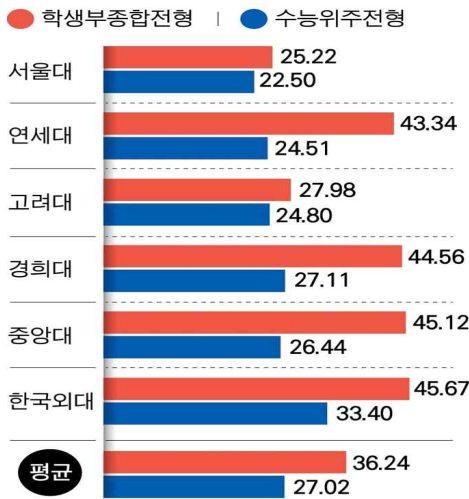
1) 조현탁(2018-2019), <SKY 캐슬>, HB엔터테인먼트.

2) 박경준(2017.01.02.),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 원망해"...춧불 타오르게 한 정유라(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102076351004\(2022.12.06.\)](https://www.yna.co.kr/view/AKR20170102076351004(2022.12.06.)).

로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제도’ 등이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시험을 통한 경쟁은 과연 ‘공정’한 것일까?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3)</sup> 그리고 Haidt는 모두가 평등

### 최근 3년간 6개대 전형별 입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율(단위:%)



자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원리’와 노력한 만큼 차등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비례원리’에 의해 공정이 작동한다고 말했다.<sup>4)</sup> 이러한 공정의 작동원리는 능력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능력주의란 지능, 노력과 같은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과 사회적 지위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이다.<sup>5)</sup> 이상적인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노력에 따라 누구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 진정한 공정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결과로 드러나는 능력은 구조적 불평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오는 교육의 차이는 성적과 학력 등의 격차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시험은 개인적 능력 이면의 가정환경, 교육 등의 비능력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sup>6)</sup> 첨부된 그래프를 살펴보면, 2016~2018학년도 우리나라 명문대 6곳 입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40%도 안 될 정도로 낮다. 게다가 수능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혜율은 평균 27.02%로, ‘금수저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소득환산액이 월 923만 원을 초과하는 9, 10분위를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명문대 입학생의 60%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이며 그 비율이 시험으로 평가하는 수능 전형에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따라서 현실에서 모든 비능력적 요인을 제거하고 개인의 능력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과에 따라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에 조사한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노력 등에 따라) 더 차이가 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조사 문항에 한국인의 64.5%가 불평등에 찬성한다고 답했다.<sup>8)</sup>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일부 학자들과 정태석은 능력주의의 한계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논문을 발표하였다.<sup>9)</sup> 이처럼 능력주의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능력주의를 맹신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가볍게만 다루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능력주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3) “공정”,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4b724fd45bc4c34b0035b20de43ad11>(2022.12.04.).

4) 조너선 하이트(2014), 『바른 마음: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 웅진지식하우스, 232쪽.

5) 남미자·배정현·오수경(2019), 「교육열, 능력주의 그리고 교육 공정성 담론의 재고(再考): 드라마 <SKY 캐슬>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9-2, 한국교육사회학회, 135쪽.

6) 김정희원(2022), 『공정 이후의 세계』, 창비, 69-75쪽.

7) 송옥진(2019.10.02.), 「[단독] 금수저 학생? 국가장학금 1유형 정시 입학생보다 더 받아」,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647332943>(2022.12.06.).

8) 김남중(2021.09.23.),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과잉 능력주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0372&code=13150000&sid1=?\(2022.11.10.\)](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0372&code=13150000&sid1=?(2022.11.10.)).

9) 정태석(2021),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경제와사회』 132호, 비판사회학회, 14쪽.

먼저 살펴보고, 이를 맹신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 능력주의의 부정적 영향

### 1. 차별의 정당화

기회의 평등이라는 명제 아래에 능력주의가 공정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사회적으로 실패한 이들을 무능한 자로 만들어 무시하는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불평등한 구조적 조건에 따라 능력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 성적, 출신 대학, 정규직 여부 등에 따라 서열을 매긴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자신보다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차별과 무시를 당연하게 행하고, 이들이 받는 재분배를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여긴다.<sup>10)</sup> 2020년 6월 인천국제공항(이하: 인국공)에서 공항소방대원과 보안검색요원 등을 포함한 회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사 직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던 사건,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이들이 말하는 ‘불공정한 혜택’의 대표적인 사례다. 인국공 정규직 노동조합은 이들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청년들도 ‘운’에 따라 정규직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다.<sup>11)</sup> 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그저 운이 좋아 정규직이 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오랜 시간 직무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들이지만,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인국공의 발표 이후 연봉은 그대로 유지된 채 계약 형태만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얻는 것뿐이었는데, 사람들은 ‘정규직’이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맞춰 분노했다.<sup>12)</sup> 시험이라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거치지 않는다면, 업무 능력이 있더라도 정규직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차별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 서울대학교에 ‘기회균등선발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전형을 숨기거나, 동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끼리만 지내는 방법 등을 통해 일반 학생들의 비하와 차별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sup>13)</sup> 이들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인들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치열한 경쟁 끝에 자기 능력을 인정받아 정당하게 입학한 데에 반해, 기회균등선발 특별전형 학생들은 불공정한 혜택으로 쉽게 입학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능력이란 여러 비능력적 요소들과 능력이 결합하여 산출된 결과다. 사교육업계에 따르면 전국 3대 영재학교 신입생 중 과반수가 대치동 A학원 출신이라고 한다.<sup>14)</sup>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교육 수준의 차이는 자연히 시험 성적과 학력의 격차를 만들어 내므로, 능력주의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sup>15)</sup> 따라서 비능력적 요소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는 당연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분배를 그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혜택’을 타인이 노력 없이 받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이처

10) 정태석(2021), 앞의 논문, 29쪽.

11) 김기찬(2020.07.29.), 「정규직 사태 분노, 촛불로 번진다…인국공 '초유의 길거리 시위」,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36098#home>(2022.12.10.).

12) 김정희원(2022), 앞의 책, 47쪽.

13) 기민도(2019.05.26.), 「“기회 고맙지만 낙인·학업 스트레스” 서울대 기균전형 입학생 두번 운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7001009>(2022.12.10.).

14) 고민서·문광민(2021.06.11.), 「3대 영재고 신입생 절반 대치동 `한 학원` 다녔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9909649>(2022.12.10.).

15) 남미자·배정현·오수경(2019), 앞의 논문, 152쪽.

럼 능력주의 사회는 결과에 따른 차별과 혐오의 죄의식마저 경감시키고 있다.

## 2. 끝없는 자기착취 유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승자만이 인정받고 패자는 무시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해 성공하고자 한다. 조기교육과 입시, 취업 등에서 경쟁해온 청년 중 대다수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한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스트레스가 누적돼 무기력증이나 불안감, 우울감 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sup>16)</sup> 동아일보가 올해 11월에 진행한 설문 조사를 따르면, 20~30대의 43.9%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한다. 번아웃을 느끼는 이유로 20대는 ‘남들과의 비교’를, 30대는 ‘성공에 대한 압박’을 가장 많이 뽑았다.<sup>17)</sup> 이러한 부담이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 정책에서도 경쟁은 계속된다. ‘수혜’를 받기 위해 국가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교와 선별을 통해 빈곤계층이지만 성실한 모범 시민인 자, ‘소년·소녀 가장’이지만 한 번도 탈선하지 않은 ‘바람직한 주체’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sup>18)</sup> 이처럼 자기착취는 능력주의라는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산물이며,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끝없는 자기착취의 굴레에 빠져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본에 의해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 3. 불평등 심화

승자가 보상을 독차지하는 사회에서 처음의 작은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미미함에도 기회를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보상 격차가 과도하게 큰 사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한다. 분배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사람들은 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며, 이는 시험 만능주의를 공고화한다.<sup>19)</sup> 사람들은 시험을 ‘공정’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정부에게는 무능한 이들이 특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관리자의 역할만을 바랄 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sup>20)</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세습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노력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며, 그 상황에서 계급 상승을 하는 것은 정말 드문 경우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불평등의 증가는 개인에게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집단에서도 계층 간 갈등이 일어나며 각종 사회 해체적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sup>21)</sup>

16) “번아웃 증후군”,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79646&cid=42107&categoryId=42107>(2022.12.10.).

17) 윤다빈(2022.07.12.), 「과로사회 MZ세대 44% “번아웃 경험”… 힐링 리스트 작성-실천을」,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712/114400147/1>(2022.12.10.).

18) 김정희원(2022), 앞의 책, 154쪽.

19) 박권일(2019.01.21.), 「[월요칼럼] ‘스카이 캐슬’의 사회학: 문제는 시험이 아니다 /박권일」, 뉴스민, <https://www.newsmin.co.kr/news/36682/>(2022.12.11.).

20) 천관울(2018.03.05.), 「문재인 정부를 흔든 ‘공정의 역습」,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5>(2022.12.10.).

21) 황선재(2015),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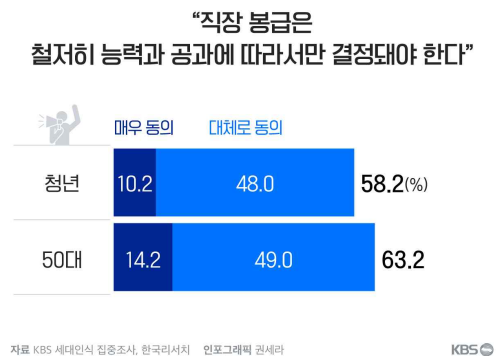
### Ⅲ. 만연한 능력주의, 맹신하는 우리 사회 (부제: 능력주의 맹신 원인)

#### 1. 능력주의의 역사 흐름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와 함께 나타난 개념이다. 프랑스 혁명 때 혈통이나 신분이 아닌 ‘재능’에 의한 출세를 내걸며, 당시 만연했던 귀족세습주의에 대항하였다. 능력주의는 주로 교육과 직업 분야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그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1788년 독일에서는 대학 입학시험을 처음 도입하였고, 뒤를 이어 영국과 미국에서도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시험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하는 평등한 장치로 인식했다. 시험의 기초가 된 능력주의라는 용어는 1958년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의 부상》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능력주의가 평등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엘리트 지배체제의 사회로 전락한다는 것이었다.<sup>22)</sup> 그리고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는 능력주의 모습과 유사하다.

한국의 능력주의는 오랜 세월 동안 과거제도, 고시제도, 학력주의 등을 거쳐 변모하고 강화되어왔다.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제도는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이었고, 당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시험을 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도 학벌, 직업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며, 이는 가족의 사회적 계급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며, 자녀의 성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곤 한다.<sup>23)</sup> 이처럼 능력주의는 역사적 흐름에 걸쳐 가족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작용해왔다.

여러 언론에서는 능력주의가 청년세대만의 특성이 아닌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공정과 능력에 대한 집착은 세대를 막론하고 한국인에게 내면화된 습성이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차가 공정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결과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질문에 청년의 65.7%, 50대의 82.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직장 봉급은 철저히 능력과 공과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라는 질문에는 청년의 58.2%, 50대의 63.2%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이므로, 그 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다.<sup>24)</sup> 따라서 사람들이 능력주의를 맹신하는 원인은 세대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흐름에서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연구, 9쪽.

22) 정원석(2021.07.06.),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노동자 연대, [https://wspaper.org/article/25830\(2022.12.11.\)](https://wspaper.org/article/25830(2022.12.11.)).

23) 남미자·배정현·오수경(2019), 앞의 논문, 154쪽.

24) 송형국(2021.06.25.),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④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다」,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8373\(2022.12.10.\)](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8373(2022.12.10.)).

## 2.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에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응하는 농지개혁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자영농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후 전쟁으로 인해 가난이 평준화되면서, 당시 민중들은 가족들을 위해 육체노동을 하며 힘들게 살아갔다. 이들은 자식에게 가난의 힘듦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자녀교육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그 후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며 경제성장 정책과 함께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추첨 배정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상승의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열은 점차 높아져 사교육 경쟁도 확산시켰다.<sup>25)</sup> 오랜 군사정권과 보수정권의 집권 아래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찾기 어려웠던 현실 조건 때문에,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 더 좋은 직장과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주의적 경쟁에 몰두하게 된 것이다. 이때의 교육 경쟁이 이어져 현재는 모든 방면에서 경쟁하는 사회로 변모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원분배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획일화된 생애과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 3. '공정'에 대한 집착

SBS에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공짜로 받은 10만 원을 모르는 사람과 나누는 실험으로, 이 10만 원의 분배 비율은 제안자가 결정하며 응답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한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을 때 제안자의 대부분이 10만 원의 절반인 5만 원을 응답자에게 제시했고, 응답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 후 돈을 나누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험을 보고, 점수대로 제안자를 선출해 다시 돈을 나눠 보았다. 이때 제안자들은 절반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했으며, 응답자 또한 이를 수긍했다. 추후 인터뷰에서 실험자들은 시험을 잘 본 사람이 더 좋은 보상을 받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라며, 이를 토대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sup>26)</sup> 이처럼 사람들은 능력과 관련이 없는 시험임에도,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믿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한 능력주의는 차이를 거부하고 동질성을 추구하고 있다. 능력주의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공정한 기준으로 똑같이 평가받아 자신이 부당하게 손해 보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청년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빚투 탕감' 정책을 보고, 사람들이 반발했던 사례는 이 신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빚을 진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고통을 감내하고 스스로 노력해 성공하라는 각자도생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sup>27)</sup> 하지만 이 정책은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는 정책이었으며, 유사한 정책들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안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방면에서 '공평'한 혜택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복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공정에 집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취업과 직무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공정한

25) 정태석(2021), 앞의 논문, 27쪽.

26) SBS(2018.11.17.), <대한민국 시험 만능주의를 한방에 보여주는 소름 실험 / 스프스뉴스>, YouTube 스프스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VCp2KlShcI0\(2022.11.10.\)](https://www.youtube.com/watch?v=VCp2KlShcI0(2022.11.10.)).

27) 김정희원(2022), 앞의 책, 32쪽.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 갈등이 심화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확장실업률은 최근 5년간 꾸준히 20%를 넘겼다.<sup>28)</sup> 불안정한 사회는 이기심을 유발해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타인을 배척하도록 만든다.

추가로 능력주의에 대한 신뢰는 역설적으로 시민들 사이의 사회적 신뢰가 높지 않음을 알려준다. 사람들이 시험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 절차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재력과 인맥 등을 통한 다양한 부정부패가 이루어져, 인간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9년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총 8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중기중앙회의 정규직 신규 채용에선 면접위원이 면접 채점표를 바꿔치기했으며, 대교협 계약직 채용에서는 자격요건인 석사 학위가 없는 지원자가 합격하는 등의 부정부패가 발생했다. 이들의 채용 부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잠재적인 피해자만 122명 이상이다.<sup>29)</sup>

#### IV. 결론

본고에서는 ‘능력주의’가 우리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맹신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능력주의는 등장 당시 귀족세습주의에 대항하는 평등한 장치로 인식되었지만, 결국엔 엘리트 지배체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시험을 통한 절차 공정성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이에 따라 능력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하고 더 강화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보다,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통해 더 좋은 직장과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주의적 경쟁에 몰두하게 되었다.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환경과 같은 비능력적 요소는 개인이 바꿀 수 없지만, 능력주의에 따른 시험에서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 과정에서 불안정한 사회 구조는 이기심을 유발해 타인을 배척하게 하였고, 각종 부정부패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며, 이는 곧 ‘공정’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차별을 정당화한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서열화하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발언들은 일상에 넘쳐난다. 하지만 시대마다 요구하는 ‘능력’은 계속 달라진다. 가령 과거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라면 ‘유튜버’로 성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능력’은 그 자체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률적인 가치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사람은 언제나 패자가 될 수 있기에, 서열에 따른 차별을 지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모범적인 주체’가 아닌 취약계층의 아이들도 여러 복지 제도를 통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수만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닌, 다수가 어우러져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28) 이후민(2022.10.14.), 「‘청년 확장실업률’ 최근 5년 연속 20% 웃돌아」,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401070527333002>(2022.12.10.).

29) 문채석(2020.07.24.), 「공공기관 채용비리 작년 83건…중기중앙회 등 9곳 수사의뢰」,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2415490610836>(2022.12.11.).

## [참고문헌]

### 1. 학술논문

- 남미자·배정현·오수경(2019), 「교육열, 능력주의 그리고 교육 공정성 담론의 재고(再考): 드라마 <SKY 캐슬>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9-2, 한국교육사회학회, 131-167쪽.
- 정태석(2021),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경제와사회』 132호, 비판사회학회, 12-46쪽.
- 황선재(2015),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보건사회연구, 5-25쪽.

### 2. 단행본

- 김정희원(2022), 『공정 이후의 세계』, 창비.
- 조너선 하이트(2014), 『바른 마음: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 웅진지식하우스.

### 3. 기사 및 기타

- 고민서·문광민(2021.06.11.), 「3대 영재고 신입생 절반 대치동 `한 학원` 다녔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9909649\(2022.12.10.\)](https://www.mk.co.kr/news/society/9909649(2022.12.10.)).
- “공정”,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4b724fd45bc4c34b0035b20de43ad11\(2022.12.04.\)](https://ko.dict.naver.com/#/entry/koko/74b724fd45bc4c34b0035b20de43ad11(2022.12.04.)).
- 기민도(2019.05.26.), 「“기회 고맙지만 낙인·학업 스트레스” 서울대 기균전형 입학생 두 번 운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7001009\(2022.12.10.\)](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7001009(2022.12.10.)).
- 김기찬(2020.07.29.), 「정규직 사태 분노, 촛불로 번진다…인국공 '초유의 길거리 시위'」,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36098#home\(2022.12.10.\)](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36098#home(2022.12.10.)).
- 김남중(2021.09.23.),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과잉 능력주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0372&code=13150000&sid1=?\(2022.11.10.\)](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0372&code=13150000&sid1=?(2022.11.10.)).
- 문채석(2020.07.24.), 「공공기관 채용비리 작년 83건…중기중앙회 등 9곳 수사의뢰」,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2415490610836\(2022.12.11.\)](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2415490610836(2022.12.11.)).
- 박경준(2017.01.02.),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 원망해"…촛불 타오르게 한 정유라(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102076351004\(2022.12.06.\)](https://www.yna.co.kr/view/AKR20170102076351004(2022.12.06.)).
- 박권일(2019.01.21.), 「[월요칼럼] '스카이 캐슬'의 사회학: 문제는 시험이 아니다 /박권일」, 뉴스민, [https://www.newsmin.co.kr/news/36682/\(2022.12.11.\)](https://www.newsmin.co.kr/news/36682/(2022.12.11.)).
- “번아웃 증후군”,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79646&cid=42107&categoryId=42107\(2022.12.10.\)](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79646&cid=42107&categoryId=42107(2022.12.10.)).
- 송옥진(2019.10.02.), 「[단독] 금수저 학종? 국가장학금 1유형 정시 입학생보다 더 받아」,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647332943\(2022.12.06.\)](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647332943(2022.12.06.)).
- 송형국(2021.06.25.), 「KBS 세대인식 집중조사④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다」,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8373\(2022.12.10.\)](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8373(2022.12.10.)).
- 윤다빈(2022.07.12.), 「과로사회 MZ세대 44% “번아웃 경험”… 힐링 리스트 작성-실천을」,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712/114400147/1\(2022.12.10.\)](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712/114400147/1(2022.12.10.)).  
이후민(2022.10.14.), 「‘청년 확장실업률’ 최근 5년 연속 20% 웃돌아」,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401070527333002\(2022.12.10.\)](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401070527333002(2022.12.10.))  
정원석(2021.07.06.),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노동자 연대,  
[https://wspaper.org/article/25830\(2022.12.11.\)](https://wspaper.org/article/25830(2022.12.11.)).  
조현탁(2018-2019), <SKY 캐슬>, HB엔터테인먼트.  
천관율(2018.03.05.), 「문재인 정부를 흔든 ‘공정의 역습’」,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5\(2022.12.10.\)](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5(2022.12.10.)).  
SBS(2018.11.17.), <대한민국 시험 만능주의를 한방에 보여주는 소름 실험 / 스프스뉴스>,  
YouTube 스프스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VCp2KlShcl0\(2022.11.10.\)](https://www.youtube.com/watch?v=VCp2KlShcl0(2022.11.10.)).

귀하가 제출한 본 서면은 교육 목적의 교재 제작과 수업 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 승낙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